

사회복지시설 탐방 16 참나무청소년배움터 원장 윤공부

사회의 진정한 인격자 양성



참나무 청소년 배움터는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참다운 배움을 배우고 있다. (원안은 원장 윤공부 목사)

“참나무 청소년 배움터는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참다운 배움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포천시 일동면 화대 2리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참나무 청소년 배움터(원장 윤공부 목사)는 그 나라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신교 시설로 20세 전후의 결혼 가정의 아이들이나 소년원을 출

사와 부인, 그리고 공동체 가족 등 20여명이 운영한다.

1992년 4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애린교회 운영시절부터 자택에 ‘산자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여 청소년 보호를 시작했다는 윤공부 목사(62).

당시 윤 목사는 5년여 동안 78명의 청소년을 거두었다고 한다. “당시는 서울 신실동의 검정고시 학원을 보내 아이들에게 배움의 한을 풀어주었다”며 “아이들이 보통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어 많은 실패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참나무 청소년 배움터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된 것은 1997년 4월로 윤 목사가 청소년에게 본격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윤 목사는 “배움터 운영이 단순한 사회사업 차원만이 아니라 신앙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점을 결심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공부로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아니라 사회의 봉사인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목사가 참나무 배움터를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고향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바람 때문이다. “배움터를 졸업할 때 졸업장에 공동체에 소속됨을 명시해 준다”며 “그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도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마음의 안식을 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나무 청소년 배움터는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이다.

이 용돈은 목욕과 이발비 명목으로 주는 돈으로 청소년 참나무 배움터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인 배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이 시설만의 특징이다.

배움터에서는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들을 자원봉사 선생님과 지도자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배움터에서는 노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수업과목으로 농사를 넣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윤 목사는 “공동체의 특성상 아이들이 주로 농사와 부업일을 많이 한다”며 “농사를 통해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움터는 3년제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10명이 졸업했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떠났다.

또 졸업을 하면 일단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을 떠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윤 목사는 “2회 졸업해 현재 23세로 결혼을 해 공동체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 있다”며 배움터의 졸업이 단순한 학교의 졸업이 아니라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 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서는 늘 교사와 꾸준한 봉사를 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

윤 목사는 “적당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만이 청소년 참나무 배움터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정성을 드려라

성경 구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하면 이 우주는 그것을 이루어주려고 움직인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온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는 것이다.

정성은 바로 정성이다. 정성은 원래 높고 맑고 넓은 곳을 향해, 신성한 곳을 향해 그리고 중심과 뿌리를 향해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밝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성장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늘 정성 어린 마음으로 살아 가는 사람의 가슴속에는 희망이 사라지는 법이 없지만 정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늘 어둡기 마련이다.



석혜승  
보문장사 주지

정성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나태해지고 불평 불만에 빠지게 된다. 정성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때 자연스럽게 정성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정성을 들일 수가 없다.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안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이다.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는 정성에 있고 그 정성은 바로 내 안에 있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시공간 확보

43번국도~대진테크노파크 왕복2차선 도로 요구



대진테크노파크는 임시 사무실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지역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800평의 임시공간을 (박물관)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하게 된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차 단지 조성단계까지 임시공간을 사용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체를 지원하고 산업집적화를 통한 선진기술개발, 산업고도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전통산업과 최첨단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혁신의 선도주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주요 연구 분야는 특화 및 집중, 네트워크, 전자 개발과 국제화로서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 강화, 다국적 기업의 유치와 국내외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동기반

터의 운영, 대진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은 대진대학교의 역량 강화와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마케팅 전문교육과정(7월)과 디자인 전문창업강좌(9월)가 예정되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원만한 정보유통사업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대진대학교내의 왕복 2차선도로 사용에 따른 안전성, 신속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43번 국도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까지 연결하는 길이 1천300m의 연계진입로를 포천시와 경기도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도약하는 2005, JCI KOREA-포천의 힘으로”

JCI KOREA-포천 창립 30주년 기념식 가제

JCI KOREA-포천(회장 윤석준)이 태동 30년을 맞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JCI KOREA-포천은 지난 16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200여명의 로컬회원 및 타로칼 회원, 내빈이 참석해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 제21회 청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자축연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1부에서는 신입회원 선서 및 회원배전, 제21회 청년대상 시상식과 축하공연, 제21회 청년대상 시상식과 축하공연, 전역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윤석준 회장은 기념사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JCI KOREA-포천의 제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며 “제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JCI의 이념아래 포천, 나아가 국가

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진취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자”고 말했다.

제21회 청년대상 수상자는 ▶일반공무원부문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인하 ▶경찰공무원부문 포천경찰서 순경 한성원 ▶교육공무원부문 일동중 교사 류귀열 ▶제1공무원 부문 포천우체국 임영철 ▶소방공무원부문 포천소방서 방호예방과 김동기 ▶등용기 부문 포천시 4-H연합회 회원 이종재이고, 장학금 수상자는 ▶포천고 박승민(2년) ▶포천중 조아름(2년) ▶일동중 송규준(3년) ▶영북중 송동희(1년) ▶관교 박재만(1년) ▶풍남고 조성도(1년)가 각각 3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역별 기자 94spice@hanmail.net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주세요”

제1회 포천시장애인 어울마당

포천시 장애인 연합회(회장 박재훈)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포천시장애인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포천시와 포천교육청, 포천경찰서가 후원하며 장애인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과 봉사자 가족 모두 단합함으로써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복지증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열린다.

이번 행사를 계획한 포천시장애인 연합회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 수가 6천200명인데 어떤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고 관심조차 없으며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사회복귀, 직접정신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긍지를 심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의회 · 노원구의회 자매결연

18일, 몽베르CC에서 자매결연 체결



지난 18일 몽베르CC에서 포천시의회와 노원구의회가 자매결연을 갖고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포천시의회(의장 홍성훈)는 지난 18일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소재 몽베르 CC삼떼룸에서 서울시 노원구의회(의장 이한선)와 자매결연체결 협의회에서 서명하고 양 지방의회 간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협서에서 이날 양 지방의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우호 교류의 바탕위에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양 지방의회 의장은 상시적 인 연락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쌍방의 교류와 협력사업 및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포천시의회 홍성훈 의장을 비롯 13명의 의원과 노원구의회 이한선 의장을 비롯 11명의 의원, 박운국 포천시장과 양 지방의회 사무국 간부 및 직원 20명과 기자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체결식은 양 지방의회 의장의 기념사와 박운국 포천시장의 축사 합의 서낭독, 합의서 서명, 상호교환, 선물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자매결연 체결식을 기점으로 노원구의회와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안문제도 내실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선 노원구의회 의장은 “양 도시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창동기지창 이전사업이 정치적인 이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운국 포천시장의 축사를 통해 “포천시가 문화관광의 예술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때에 노원구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활발한 교류로 상호이익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42차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개최

춘계야유회 평일보다 휴일 실시의견 제시



포천신문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본지 대회의실에서 제4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42차 포천신문 운영위원회가 17일 본지 대회의실에서 윤이용 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윤이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임 위원장 두분 참석에 감사드리고 운영위원님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곳곳이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5월18일 운영위원회 춘계 연수를 서부전선 노동당사 등 안보관공을 실시했는데 참석자들이 안보이슈였다”고 말했다.

이어 본지 최호열 발행인은 “우려난 날씨가 회사업무에도 바쁘게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와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해외출장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배성호 고문님과

유병호 고문님께 특별히 감사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지역신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본지는 지역신문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포천신문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자원위원회, 조사위원회, 주부मंत्री자단, 학생मंत्री자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운영위원회에서도 좋은 신문이 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춘계야유회 건’ 토의에서는 지난 야유회 참석률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내년도 야유회는 일요일 혹은 토요일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른 번수를 감안해 내년에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승원기자 forme65@paran.com

‘2005년도 자연정화 캠페인’ 실시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지회, 지속적 캠페인 펼칠 것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지회 신북면위원회는 지난 18일 포천시 신북면 심곡2리 갱이울유원지에서 2005년도 자연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지회 신북면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지난 18일 포천시 신북면 심곡2리 갱이울유원지에서 ‘2005년도 자연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갱이울유원지의 환경정화를 통해 깨끗한 환경 유지함으로써 관광객에게 관광지로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올바른 행락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연제남 가산면장, 이병업 바르게살기포천시지회장 등 50여명이 참가해 실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춘식 전 위원장과 한명식 전 총무에 대한 감사장과 행운의 열쇠 증정

도 이뤄졌다. 김상희 위원장은 기념식에서 “진실·질서·화합의 목적달성을 통한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매년 사람은 자리도 아름답다”는 문구처럼 자연을 보존하는데 지역주민 모두가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북면 김상희 위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올해 주요사업을 신북면 관광지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과 행락질서 지키기로 정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기자 94spice@hanmail.net

유계필 서울체신청장 포천우체국 방문

4월 취임 후 체신청 산하 직원 격려하기 위해



유계필 서울체신청장은 포천우체국을 방문해 이원규 포천우체국장으로 부터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청취했다.

유계필 서울체신청장이 지난 14일 서울체신청 산하 지역 총괄우체국인 포천우체국(국장 이원규)을 방문해 2005년 경영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원규 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포천우체국은 1905년8월 포천임시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소포, EMS 접수물량은 각각 9.3%와 13.8%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포천우체국은 우편사업 수익증대 일환으로 현 17개 우체국택배 업체를 50여개 업체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방화중 대학생 기숙사 택배 유지활동 ▶우체국특산품 공공업체의 유지기 홍보활동 전개(추석 및 연말) ▶국제특급 계약업체 유지활동 ▶포천시(승정 2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 유치(포천시청, 335만 원 상당의 전지 500매)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전직원 CS 자가진단 실시 ▶창구직원 우수관서 및 금융권 벤치마킹 실시 ▶정기적 고객견문 수렴 ▶외부강사 초빙 CS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안 및 건의사항 보고에서는 소홀음 송우리 일원인 택지개발 사업으로 집배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포천송우우체국 집배센터 건물 신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